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8월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전공)학위논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 실패공포 매개효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허 경 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 실패공포 매개효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Failure

2023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허 경 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지도교수 김 진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허 경 준

허경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섭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재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진숙 (인)

2023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vii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부모기대부응	8
1. 부모기대부응의 개념	8
2. 부모기대부응의 구성요소	11
제 2 절 진로결정수준	13
1. 진로결정수준의 개념	13
2.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소	15
제 3 절 실패공포	17
1. 실패공포의 개념	17
2. 실패공포의 구성요소	19

제 4 절 선행연구	21
1.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21
2. 부모기대부응과 실패공포의 관계	22
3. 실패공포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23
제 3 장 연구설계	25
제 1 절 연구모형	25
제 2 절 연구가설	25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6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26
2. 측정도구	27
가. 부모기대부응	27
나. 진로결정수준	29
다. 실패공포	30
3. 설문문의 구성 및 측정	31
제 4 장 실증분석	33
제 1 절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33
1. 자료수집	33
2. 표본의 특성	33

제 2 절 측정도구의 검증	34
1. 타당도 분석	34
가. 부모기대부응 요인분석	34
나. 진로결정수준 요인분석	36
다. 실패공포 요인분석	37
2. 신뢰도 분석	38
제 3 절 기술통계	39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39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40
제 4 절 가설의 검증	42
1.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42
2.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43
제 5 장 결론 및 제언	48
제 1 절 분석결과의 논의	48
1. 가설 검증 결과	50
2. 논의	51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53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및 제언	55

참고문헌	57
부록	66
부록1. 부모기대부응척도	67
부록2. 진로결정수준척도	68
부록3. 실패공포척도	69

- 표 목 차 -

<표 2-1> 진로의사결정수준에 대한 연구자별 정의	14
<표 3-1> 부모기대부응 척도(LPE)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표 3-2> 진로결정수준 척도(CDS)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 3-3> 실패공포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1
<표 3-4> 설문지의 구성	32
<표 4-1> 표본의 특성	33
<표 4-2> 부모기대부응 요인분석 결과	35
<표 4-3> 진로결정수준 요인분석 결과	36
<표 4-4> 실패공포 요인분석 결과	37
<표 4-5> 신뢰도 분석 결과	38
<표 4-6> 변수의 기술적 통계	39
<표 4-7>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41
<표 4-8> LPE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42
<표 4-9> LPE가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	44
<표 4-10> 실패공포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44
<표 4-11> LPE/실패공포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45

<표 4-12> 매개효과 검증 46

- 그림 목 차 -

<그림 2-1> 성공지향 및 실패 공포에 대한 유형	18
<그림 3-1> 연구모형	25
<그림 4-1>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47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Failure

HEO, Gyeong-jun.

Advisor : Prof. Kim Jin-Suk, Ph.D.

Major in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Unlike academic high school, where most high school students aim to go to college, specialized high schools have a wide variety of career paths after graduation, such as students who want to get a job, students who want to go to college, and students who are preparing to become civil servants by recruiting high school graduates. Therefore,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think about the future for themselves in choosing a career path, but sometimes this diversity prevents students from deciding on a clear career path. The sad reality of specialized high schools is that there are many students who worry about going to school and getting a job until just before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eventually graduate without having properly prepared or decided on anything. Most of the students who enter specialized high schools have a clear intention of getting a job in a specific field, but most of them are students who want to learn skills because they are not good at studying or to do economic activities quickly due to difficult family circumstances. In addition, most of the students who feel that they are not living up to their parents' expectations are experiencing a lot of difficulties in making career decisions.

Due to these issues, studies on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on parental

expectation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are mostly college students or adults. is focusing on Considering the fact that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re given opportunities to choose their careers during their high school years, unlike other liberal arts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on career decision-making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after identifying the level of meeting parental expectations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parents' expectations perceived by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actual self-performing ab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meeting parents' expectations perceived by students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whether fear of failur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Parental Expectations Responsiveness Scale(LPEI), the Career Decision Level Scale, and the Fear of Failure Scale, targeting third-year students at specialized high schools located in Gwangju. A total of 232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hich was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8.0. In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major variables were conducted,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fail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eting parental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perceived response to parental expectation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areer decision level,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ear of failure. Also, the fear of failure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Second, the higher the 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s, the higher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nd the less difficulties related to career decis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fear of failure significantl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eting parents' expectations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when students in specialized high schools do not live up to their parents' expectations, they have fear or fear of failure when they

perform a certain task, which lowers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This can make it difficult to decide on your career pa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meeting parents' expectations perceived by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fear of failure. level can be aff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career counseling and understanding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parental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s.

Key words: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meeting parents' expectations, level of career decision, fear of failure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올바른 진로 결정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을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투자하는데, 이는 일생의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기는 이와 같은 진로와 직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진로탐색을 거쳐 이후 진로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시도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시기이다(장계영, 김봉환, 2011). 청소년기의 올바른 진로탐색을 위해 진로결정 상태가 요구되는데, 진로 결정상태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자신에 관해 명확히 이해하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며, 자신과 환경의 연관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김영혜, 2013; 권소희, 2014). 또한, 개인의 성장 과정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성인진입기 전인 청소년기 시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 스스로의 진로를 뚜렷하게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습능력이 비슷한 학생들일지라도 가정 및 생활 배경에 따라 진로 탐색이나 진로 결정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기관으로 국가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취업과 진로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 직업교육 단계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졸업 후 관련 분야에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현장성 있는 교

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22).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 결정수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적응 수준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변수이며, 진로 미결정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김은진·천성문, 2001).

하지만 본 연구자가 5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 및 상담한 바로 현실적인 학교 현장에서는 중학교 성적에 맞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입학과 동시에 진로 결정 및 취업 준비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기 보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거나 친구관계에 따라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2022)의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행복정도 및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이 19.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진로 및 학업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며 부모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진로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이도형 외, 2018).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강조하며(조궁호, 2007), 집단주의적 특성을 지닌다. 집단주의 문화는 ‘자신’ 보다 ‘타인’ 을 더 중요시 여기며 유교적 문화에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강조한다(조궁호, 2012). 예를 들어, 사회 조직에서는 권위자의 영향이 강하고(최상진 외, 2000), 가족 내에서는 부모의 말이나 뜻을 따르고 잘 모셔야 한다는 효를 중요시 여긴다(서선희, 1998).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성을 쏟으며 헌신함과 동시에 자녀의 학업성취나 인격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는 그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 노력한다(Shek & Chan, 1999). 특성화고 학생들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타인 즉, 부모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생각하기 어렵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Leung, Hou, Gati와 Li(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조금 느낀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간 관계에 대해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진로연구에서 부모의 기대를 고려하고 부응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부모-학생의 관계에 있어 진로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율적인 경우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게 나타났고, 통제적인 경우 진로미결정이 높게 나타났다(이현숙, 조한익, 2004).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았으며(정소영, 2019; 김세록 2019; 김수연, 2019), 부모와의 관계에서 개별화가 덜 되었을 경우 진로미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김은진, 2001). 이는 부모의 과보호, 통제 등이 자녀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부모기대부응정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기세, 이수정, 연규진, 2018). 김경희(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더 원활하게 진로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조금 경험하였음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 자녀의 인식에 초점을 두어 지각된 자기수행(PSP)에서 지각된 부모기대(PPE)의 차이를 보는 개념인 부모기대부응(LPE)에 주목하였다. 지각된 부모기대(PPE)는 부모로부터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지각된 자기수행(PSP)는 학업성취나 인격성숙과 관련된 자신의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지각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된다.

한편, 부모기대부응 정도를 동일하게 지각하더라도 부모기대부응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로부터 동일 성취압력을 받더라도 개인의 내적 요인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이 촉발될 수도 있고, 상쇄될 수도 있다는 노정림(200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대부응에 개인의 내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요소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인 실패공포(Fear of Failure)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실패공포(Fear of Failure)는 주어진 과제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패공포가 높은 학생들은 부모나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종종 미루기 행동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고 나타났다(박보람, 양남미, 2012). 특히,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지연 행동을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심지어는 시험 결과나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해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ddler, & Buley, 1999).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이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명희, 2011). 특히,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므로(최명진, 2017) 이는 청소년의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일대기에 있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일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고민 해 봐야 할 문제이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다른 발달 시기와 달리 진로 탐색과 발달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유창림, 2016), 졸업 후 취업과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하여 이 시기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한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두 변인이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실패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인 실패공포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필요와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기대 수준과 실제 자기수행의 차이를 통해 부모 기대 부응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기대부응 정도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하고, 이러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실패공포’가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A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로 부모기대부응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진로결정수준을 정하였다. 또한, 변수 사이에서 실패공포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특성화고등학생으로 한정시켰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상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취업을 할지, 대학에 진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므로 1, 2학년을 제외한 3학년 학생만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 직업교육 단계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졸업 후 관련 분야에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현장성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22). 또한,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특성에 따라 공업계열, 농업계열, 상업계열 등 학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계열 학생으로 대상을 정하였으며, 대상으로 선정한 학교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3학년

기준 기계과, 산업설비검사과, 전기과, 화공과, 건축과, 토목과 총 6개과이며, 과별 3학년 학생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둘째, 부모기대부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에는 학업성취, 인격성숙, 연인관계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인마다 지각하는 부분의 범주가 넓다고 판단되는 연인관계를 제외하였고, 학업성취, 인격성숙에 2가지 항목에 대해 지각된 자기수행(PSP) 대비 지각된 부모기대(PPE) 값인 부모기대부응(LPE) 값을 측정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정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각한 부모기대부응 정도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소인 진로확신 및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셋째, 매개변수로는 실패공포를 선정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정도가 진로결정수준의 영향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실패공포의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이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선정하였고, 실패공포라는 변인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상담에 대한 기초와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기대부응, 진로결정수준, 실패공포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서적, 선행연구,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였다. 이를 통

해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연구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 간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정하였다.

둘째, 실증분석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남·여 250명 대상으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3년 3월 8~14일 7일간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종이 설문지로 배부하였고, 연구자가 직접회수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Chronbach's α 를 이용하여 각 설문문항에 대해 신뢰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변수에 대한 개괄적 평가를 위해 기술적 통계 분석을 하였다. 4)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5)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기대부응, 진로결정수준, 실패공포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줄 것인가?

셋째, 특성화고등학생의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패공포가 매개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부모기대부응

1. 부모기대부응의 개념

기대는 사전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18). 하지만 기대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은 연구 목적에 따라 학자들이 예언, 의견, 태도, 행동 혹은 지각, 믿음 등과 같은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즉, 기대라는 개념은 관련된 이론이 없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영역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Goodnow, 1988). 이렇듯, 학문적 개념이 정립되진 않았지만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기대의 정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나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부모기대는 양육신념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박영애, 정옥분, 1996),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를 이미 했거나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양아인, 2022). 즉,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기대는 자녀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김단비, 2018).

자녀의 학업성적 및 운동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가 의욕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에서 자녀에게 심리적, 정신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다(김마리아, 2013). 하지만 입시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기대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강문비 외, 2021). 특히, 자녀에 대

한 기대가 높은 부모일 경우에는 자녀의 성공을 가정이나 부모의 성공으로 동일시 여겨 부모의 인생에서 자녀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김의철, 박영신, 2008).

부모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행복감이나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ang, Watkins, & Banks, 2004). 윤남정, 신나나(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기대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아낌없는 격려를 제공하며 지지하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조은정(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는 학교생활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iggins(1987)가 제시한 자기-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기대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불일치할 경우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수빈, 2020). 실제로 부모기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한 Oishi & Sullivan(2005)는 일본과 유럽계 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기대와 자신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후속연구자인 Agliata & Renk(2009)가 연구 참여자의 80%를 백인인 미국 대학생들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Higgins(1987)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이상적, 의무적 자기 표상과 실제적 자기 표상 간에 차이를 인식하는 불일치 상태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김학렬 외(1995)는 실제-의무적 자기의 차이가 심리적 불편감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고, 박정과 장현아(2017)는 실제-의무 자기 차이가 불안과 상관성이 있으며, 대인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영호와 최정원(1998)의 연구에서도 높은 자기 불일치 수준이 우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상철 외(2008)의 연구에서도 당위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차이는 불안을 유발하고, 이상적 자기와 실제

적 자기와의 차이는 우울을 유발하여 부적 자아상 정립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이상적, 의무적 자기 표상과 실제적 자기 표상 간의 차이와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상적, 의무적 표상과 실제 자기 표상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Wang과 Heppner(2002)에 의해 개발된 부모기대부응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I)는 부모의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와 자녀가 현재 수행한 정도를 확인한 후 차이를 통해 부모기대부응 정도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집단주의 문화권의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는 성과를 가져왔다(이도형 외, 2018). 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실제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가 심리적 고통과 관련 있는지를 강조한 이전 이론(Higgins, 1987)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국내 연구자인 이기세, 이수정, 연규진(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인식했던 대학생들은 진로수행 회피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대가 과할 경우 과잉기대, 성취압력 등으로 표출되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한지유, 2022). 또한, 임종호(201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바라는 기대 정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기대 간의 차이로 인하여 부모-자녀 간 갈등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좋은 결과로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실패의 좌절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종목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심각할 경우 번아웃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이계윤, 사대환, 2015).

이렇듯, 부모기대가 자녀의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모기대부응’에 대해

서는 그 개념이 정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부모기대부응을 ‘부모의 미래지향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녀들의 심리적 상태’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부모기대부응의 구성요소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인식 및 수용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임종호, 2019). 특히, 한국의 경우 부모-자녀의 관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기대는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한다(이수빈, 2020). 그 중에서도 효를 강조하는 유교사상은 부모기대와 실제 자기 불일치를 지각하는 자녀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Shek & Chan, 1999). 이와 관련하여 Wang과 Heppner(2002)는 학생들이 부모기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기대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을 인지하여 부모기대부응 정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인 부모기대부응 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Inventory: LPEI)를 개발하였다. LPEI는 부모가 기대하는 영역들을 학업적 성취(Academic Achievement), 인격적 성숙(Personal Maturity), 연인관계(Dating Concern)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자녀가 스스로 지각한 부모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는지 측정할 수 있다.

Wang과 Heppner(2002)은 부모기대부응척도(LPEI)를 활용해 대만 대학생들의 부모기대부응 정도와 심리적 고통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고, 부모기대가 자기 수행보다 높아 불일치를 크게 지각할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크게 경험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들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인 진입기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기대부응척도를 활용한 국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

응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았으며, 부모 기대를 높게 지각하여 부모기대부응정도가 낮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지각한다고 밝혔다(한지유, 2022). 또한, 정두리 외(2020)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기대부응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기대부응이 높을수록 향상초점이 높아져 진로 태도 성숙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성인기인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현재까지 부모기대부응척도(LPEI)를 활용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청소년기엔 부모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며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도움과 정보를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가 세계적으로 이례적일 만큼 자녀교육에 헌신적이며,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신동우 외, 2012). 이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부모-자녀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성인 진입기의 자녀들이 겪는 경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김은정(2015)은 성인 진입기의 자녀가 부모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려 하는지에 분석했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경험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탐색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ng과 Heppner(2002)의 부모기대부응척도(LPEI)를 활용해 집단주의 문화권의 고등학생 중에서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 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진로결정수준

1. 진로결정수준의 개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 일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선택 중 인생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진로결정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올바른 진로교육과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장윤희, 2020). 최근에는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의 불확실성, 코로나19 등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전미리, 김봉환, 2015).

그러므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처해있는 사회나 환경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차이가 생겨나고, 개인에게 최상의 진로선택에 대한 결과가 아닌, 진로결정 과정의 촉진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로 진로발달 연구의 흐름도 변화하게 되었다(Gati, 2013; Lent & Brown, 2013). 이에 따라 이제는 진로를 탐색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진로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전영주, 2018).

여기서 말하는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on Level)은 보편적으로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과 확신 정도라고 정의되고 있다(이상길, 2008).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앞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한 확신의 정도이며,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고 있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김지은, 2022). 더 나아가 진로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직업가치에 대한 정보와 탐색활동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최진규, 2018).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개념을 <표 2-1>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표 2-1> 진로의사결정수준에 대한 연구자별 정의

연구자	내용
Jenis & Mann(1977)	진로의사결정이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Jepsen et al. (1982)	진로의사결정은 청소년 진로 발달과 연관된 특수한 영역으로, 개인의 진로결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정보와 진로 조건들을 관련 지을 때의 사고행위를 말한다.
Gati, Krausz & Osipow(1996)	해당 전공이나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는 수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이다.
임태옥(2001)	진로의사결정이란 어떤 상황에서의 과학적, 합리적인 태도를 통해 미래에 예측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함으로써 문제의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박성욱(2005)	진로의사결정수준은 개인의 진로에 대해 결정된 수준에 대한 개념과 동시에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 특성까지도 포함한다.
이성식(2007)	진로의사결정수준은 단순히 개인의 진로와 관련한 결정된 수준에 국한된 개념보다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성식, 정철영 (2007)	전공 또는 직업선택 등 진로결정 과정에서 진행수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게 결정하고 있는지의 정도이다.
이성애(2005)	개인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 시점 가운데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정보애(2013)	진로의사결정수준이란 진로에 있어 미결정과 진로결정 사이의 양극단 가운데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하늘(2019)	진로와 연관된 어떤 문제나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상태로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김경숙(2020)	개인이 진로를 명확히 결정하기 위한 단계의 수준이다.

자료: 장윤희(2020), 김지은(2022), 양희진(2022)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하였음.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진로결정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장재윤, 윤소연, 김범성, 2005). 또한, 진로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요인으로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라 할 수 있다(이성식·정철영, 2007). 즉,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수집과 행동에 대한 과정상의 연속적 개념으로 개인의 진로확신에 대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김미경, 201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와 관련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 태도를 함양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문제에 관한 적합한 해결방안의 선택으로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된다.(장광원, 2012).

2.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소

진로의사결정모형은 인간을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한 존재임을 가정하고 있으며(김하늘, 2019), 인식과 계획, 확신과 이행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문제의 핵심을 이끌어내고 다음 단계에서의 이행을 순조롭게 하는 해결책을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유명희, 2007).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진로 변경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겪기 때문에 진로미결정은 발달과정 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Holland & Holland, 1977).

이러한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 도구로는 Osipow, Carney & Barak(1976)가 제시한 진로결정수준 척도 Career Decision Scale(CDS)가 있다. CDS는 진로의사결정의 확신과 미결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Career

Decision Profile(CDP)는 진로미결정의 이유와 미결정상태에서 느끼는 편안한 정도를 중요한 요소로 제안하였고, 이에 결정성과 편안함의 두 가지 요인으로 진로결정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에 있어서 구성요소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Osipow, Carney & Barak(1976)은 구성요소로 지각된 외부 장애, 구조의 필요성, 개인적 갈등, 선택 갈등에 대한 긍정성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Gati, Krausz & Osipow(1996)는 우유부단함, 동기부족, 진로결정 절차, 직업의 보수와 정보획득 방법, 신뢰롭지 못한 정보, 사회적 지위, 외적갈등, 내적갈등,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의 9가지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자인 고향자(1992)는 구성요인으로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교육과 직업미결정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고, 탁진국, 이기학(2001)은 필요성인식 부족, 외적장애, 직업정보 부족, 사회인식 부족, 우유부단, 자기명확성 부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sipow, Carney & Barak(1976)가 제시한 CDS의 구성요인인 진로확신과 진로미결정으로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을 진로확신과 진로미결정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확신은 전공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진행 정도와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결정을 말한다. 진로확신과 반대의 개념인 진로미결정은 직업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뿐 아니라 진로결정에 대한 우유부단함을 내포하는 구체적이지 않은 심리적 상태로서, 특히 진로결정에 대해 우유부단한 개인은 진로선택 자체에 대한 미결정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학문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즉, 진로 결정을 회피하는 미결정된 개인은 불필요한 비용, 에너지, 시간의 지출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반대, 무력감, 기회포착에 대한 무력, 낮은 성적, 자기 확신의 감소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제3절 실패공포

1. 실패공포의 개념

실패공포(Fear of Failure)는 1969년 Birney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1970년대 이전까지 독립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성취동기 관련 연구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임지현, 2021). 하지만 후기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실패공포가 단순히 동기적 변인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실패공포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에 대해 정립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실패공포의 개념은 개인 내적 욕구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며(Cock & Halvari, 1999),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Elliot & Church, 1997). 이외에도 실패공포는 ‘실패 시 수치심이 예상되는 평가 상황에서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 ‘성취압력이 있을 때 실패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기질’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안주미, 2022).

실패공포와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도 실패공포가 주어진 과제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는 해외 연구자들의 정의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홍석호, 2022). 즉, 실패자체를 공포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실패로 인해 따르는 결과에 대한 두려워하는 것을 실패공포로 보는 것이다(Birney, Burdick, & Teevan, 1969).

실패공포에 대한 국외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결과를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요소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었다(DeCastella, Byrne, & Covington, 2013). 또한, <그림 2-1>과 같이 실패공포와 성공지향성에 대한 수준에 따라 실패공포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그림 2-1> 성공지향 및 실패 공포에 대한 유형(DeCastella et al., 2013)

이러한 실패공포는 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연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기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인지하는데 회피적이며 회의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이 밖에도 실패공포는 걱정, 스트레스, 신체적·인지적 불안 등의 부정적 정동과 연관이 있으며(Conroy et al., 2002), 개인의 안녕감, 대인관계 행동, 수행 능력(Sagar et al., 2009)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공포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떤 이유로 실패에 대한 공포를 형성하는지 그 기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Elliot & McGregor, 1999).

실패공포와 수치심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평가절하 및 지속적인 처벌을 가하고 성공에 대해서 무관심할 경우에 자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실패하게 되며, 실패의 결과로 실패공포가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lliot & Thrash, 2004). 그 외 부모의 양육태도와 실패공포 사이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Aunola, Stattin, & Nurmi, 2000; Sideridis & Kafetsios, 2008) 실패공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애정철회, 수치심 부과, 과도한 기대 같은 심리적 통제

가 자녀의 실패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백지은, 이승연, 2016; Elliot & Thrash, 2004; Sagar & Lavallee,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실패공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부모-자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부모기대부응과 실패공포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패공포의 구성요소

실패공포(Fear of Failure)는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한 지각, 실패로 인한 자기가치에 대한 위협,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Conroy, 2000, 2001). 또한, 실패공포는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변인으로 실패에 대한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Ellis & Knaus, 1977). 왜냐하면, 실패공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수행과정이나 과제를 회피하려는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urka & Yuen, 198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패공포는 인지-행동적 접근에서 인지적 요소로 연구되고 있다(Knaus, 2013; Schouwenburg et al., 2015).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인 Birney, Burdick과 Teevan(1969)의 연구에서는 실패공포에 대하여 개인은 실패 자체보다 실패에 수반되는 결과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 종류의 실패공포 1) 자기 가치의 평가절하, 2) 외부로부터의 처벌, 3) 사회적 가치의 감소) 개념을 제시하였다.

Conroy, Poczwardowski과 Henschen(2001)은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연구하였으며, 실패공포를 다각적으로 정의한 수행 실패 평가척도(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EAD)를 만들었다. 척도에 따르면 Conroy(2001)는 실패공포를 어떤 과제에 대해 실패 경험할 시에 사회적 영향을 잃는 것,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Conroy, Willow와 Metzler(2002)가 이 척도를 수정하여 수치와 상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fear of experiencing shame and embarrassment),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fear of having an uncertain future),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fear of devaluing one's self-estimate),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fear of important others losing interest),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fear of upsetting important others) 총 5가지 하위요소로 규명하였다. 하위요인별 구체적인 내용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의 미래의 계획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변경되거나 틀어질 수 있다는 신념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과 재능을 평가절하하는 신념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타인의 관심 상실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타인이 자신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념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타인이 속상해하고 나에게 대한 신뢰와 판단이 변화될 것이라는 신념과 이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심과 상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의 가치가 감소된다고 여긴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신념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아림, 2019). 국내 연구자인 추상엽(2008)은 실패공포의 구성요인으로 자기가치, 비자아적 처벌, 사회적 감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제4절 선행연구

1.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는 Higgins(1987)의 자기 불일치 이론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Higgins(1987)에 의하면 이상적 자기는 개인이 이상적으로 소유하기를 바라는 개념이며, 의무적 자기는 마땅히 소유해야만 한다고 믿는 특성, 실제적 자기는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속성들의 표상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는 이상적 자기(ideal self)와 실제적 자기(real self), 의무적 자기(ought self) 간의 ‘자기 불일치’는 심리적 고통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는데, 한국 특유의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 관계 문화 속에서 개인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기대로 인해 형성되는 이상적이거나 의무적인 자기 표상과 실제적 자기 표상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자기 불일치’ 상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Higgins(1987)에 따르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취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유발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자기 불일치가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임진, 김은정, 2008). 또한, 자기 불일치로 인한 이러한 부정적 정서들은 개인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와 이은희(2008)의 연구에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와 진로 정체감의 관련성을 탐구한 박미정(2017)의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한 자기불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 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형정은과 강성모(2016)의 연구에서는 자기불일치가 높을수록 진로 미결정이 높아서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들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 지지와 부모진로지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부모지지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김정애, 1994). 그러나 부모지지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는 넓은 의미의 지지로 자녀의 정신건강에는 정적 영향을 미침(고미숙, 2015) 을 알 수 있지만, 자녀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지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개인의 진로결정은 여러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내적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Shanahan & Elder, 2001). 즉,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기대 부응정도가 특성화고등학생의 자기수행 능력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로결정수준이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모기대 부응정도가 특성화고등학생의 어떤 개인 심리 내적 특성의 변화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기대에 대한 부응 정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2. 부모기대부응과 실패공포의 관계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신건강 면에서 취약한 시기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대부분은 낮은 자아 존중감 또는 자아 존중감 결여에서 기인한다(노혁, 2007).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평가는 자신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송은주 외, 2012).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타인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가도 실패한다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될 때 실패공포를 유발한다(김숙현, 2013). 특히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남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된다(최차현, 2015).

그러므로 실패공포가 높은 학생들은 과제 수행의 마감시간이 얼마남지 않을

경우 불안감을 더 느끼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는데(Rothblum, 1990), 이에 대해 Hayes et. al(1996)은 부정적인 신념, 사고 등과 같이 꺼지림직하고 혐오스러운 경험 할 때,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부모나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종종 미루기 행동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박보람, 양난미, 2012). 특히,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지연 행동을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심지어는 시험 결과나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해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ddler, & Buley, 1999).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이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명희, 2011), 특히 어머니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므로(최명진, 2017) 이는 청소년의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평가절하 및 지속적인 처벌을 가하고 성공에 대해서 무관심할 경우에 자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실패하게 되며, 실패의 결과로 실패공포가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lliot & Thrash, 2004). 그 외 부모의 양육태도와 실패공포 사이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Aunola, Stattin, & Nurmi, 2000; Sideridis & Kafetsios, 2008).

3. 진로결정수준과 실패공포의 관계

실패공포는 실패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신념으로 행동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추상엽, 임성문, 2008). 이는 실패공포가 높을수록 목표한 행동의

수행이나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실패공포가 진로에 직접적인 상관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 않으나, 학업 장면, 지연행동 등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성취와 연결시켜 연구되어 왔다.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성취를 확인받는 과정을 수반한다(윤지영, 이지연, 2017). 또한, 실패공포의 핵심 정서인 수치심은 우울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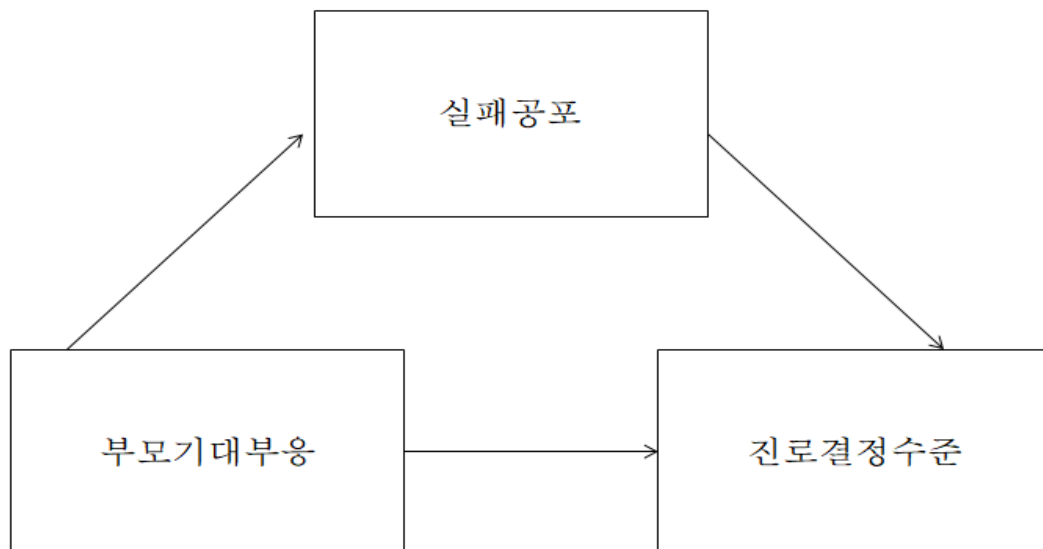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정서와 많은 연관이 있는 실패공포가 진로와 연관됨을 추측할 수 있다. 신수지(2016)는 대학생의 지연행동은 성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것에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Berger와 Freund(2015)는 높은 실패공포는 개인이 실패를 회피하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 지연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실패공포는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건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없게 만든다. Tice와 Bratslavsky(2000)는 지연행동으로 인한 목표 행동 회피는 결국 더 큰 불안을 유발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지연행동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김수지(2014)는 지연행동을 하는 개인은 실패공포가 높으며, 특히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지연행동이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목표 행동으로 볼 때, 이는 평가적인 상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패공포가 높은 개인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윤지영, 이지연, 2017).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개입요인을 탐색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기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진 취업 문턱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한 결정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을 겪게 된다고 보고했다. 윤지영과 이지연(2017)은 진로미결정과 실패공포의 상관을 .75로 보고했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패공포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54로 매우 높게 보고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진로 결정의 수월함의 정도 또한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며 진로 상담 과정에서 실패공포를 다루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부모기대부응을 독립변인으로 정하고,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정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이는 실패공포를 매개변인으로 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부응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부응은 실패공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실패공포 경험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부응은 학생이 겪은 실패공포경험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변수에 맞는 측정 도구를 선정하여 3가지의 척도로 구성된 61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학년, 성별, 학과와 같은 인문학적 문항 총 3문항을 추가하여 응답자는 총 64번의 응답을 하게 된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들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범주를 갖는 Likert 6점 척도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주를 갖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척도에 대한 설문 구성으로 부모기대부응 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I), 진로결정수준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실

패공포 척도(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 PFAI-R)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대부응,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보고식 오프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2023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중 25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불성실한 18명의 응답자를 제외한 232명을 분석하였다. 이중 남학생은 190명으로 81.9%를 차지하고 있고, 여학생은 42명으로 18.1%를 차지하고 있다.

2. 측정도구

가. 부모기대부응

참가자들의 부모기대부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Wang과 Heppner(2002)가 개발한 부모기대부응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I)를 국내에서 번안과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이기세 외, 2018)에서 부모기대부응척도(이하LPEI)의 경우 3가지 요인(인격적 성숙, 학업적 성취, 연인 관계)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를 제외한 인격적 성숙(Personal Maturity), 학업적 성취(Academic Achievement)와 관련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특성화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LPEI는 지각된 부모의 기대 (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 PPE)와 지각된 자기 수행(Perceived Self-Performance, PSP), PSP와 PPE의 차이 점수인 부모기대부응(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으로 정의된다. LPE점수는 PSP점수에서 PPE점수를 빼 값으로, LPE 점수가 클수록 자녀 스스로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인 부모기대(PPE)와 자기수행(PSP)은 전통적 가치관에 부응해서 살기를 기대하는 인격적 성숙(Personal Maturity)

과 학업적, 직업적 성공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학업적 성취(Academic Achievement) 2요인, 9개의 문항 (예,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를 기대하신다.)에 각각 다른 설문항목을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기대(PPE)의 경우, “현재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자기수행(PSP)의 경우, “현재 당신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척도는 Likert 6점 척도로, 부모의 기대(PPE)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6점)’ 로, 자신의 수행(PSP)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6점)’ 로 평정하였다. 평정 점수는 자신의 수행 점수에서 부모의 기대 점수를 뺀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정도가 높다. 자료 분석을 위해 문항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Wang과 Heppner(2002)의 연구에서 척도의 하위요인별(학업성취, 인격성숙) Cronbach’ s α 값은 PPE가 각각 .85, .91였고 PSP는 각각 .81, .87이었으며 LPE 각각 .84,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요인별 Cronbach’ s α 값은 PPE가 각각 .84, .87이었고 PSP는 각각 .90, .90이었으며 LPE는 각각 .90, .9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부모기대부응 척도(LPE)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s α
PPE		9	.82
학업성취	1-a, 2-a, 3-a, 4-a	4	.84
인격성숙	5-a, 6-a, 7-a, 8-a, 9-a	5	.87
PSP		9	.80
학업성취	1-b, 2-b, 3-b, 4-b	4	.90
인격성숙	5-b, 6-b, 7-b, 8-b, 9-b	5	.90
LPE		9	.93
학업성취	1,2,3,4	4	.90
인격성숙	5,6,7,8,9	5	.93

나. 진로결정수준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1980)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3)가 국내 정서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진로를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등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2문항(1, 2번)과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잘 할 수 있을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등의 진로 미결정 수준 16문항(3~16번)으로 총 18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를 채점했으며 1, 2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고, 3번 문항부터 18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진로확신 수준을 의미하는 문항이다.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0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은 진로확신수준이 .84, 진로미결정이 .89로 각각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2> 진로결정수준 척도(CDS)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진로확신 수준	1~2	2	.84
진로미결정 수준	3*~18*	16	.89
전체		18	.90

주. *은 역채점 문항

다. 실패공포

실패공포를 측정하는 검사는 Conroy, Wilow와 Metzler(2002)이 실패공포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PFAI-R)을 임성문(2006)이 번안한 실패공포 척도를 사용하였다. PFAI-R은 5개의 일차요인과 이 일차요인들이 실패공포라는 단일 이차요인(상위요인)으로 수렴되는 위계적 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Conroy, Wilow, & Metzler, 2002). 5개의 일차요인은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4문항), ‘수치심과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7문항),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4문항),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이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2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총점수는 25점부터 1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예시는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덜 갖는다.’,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내가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진다.’, 수치심과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이이를 보고 있다면 나는 당황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로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나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인다.’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다.

임성문(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였고 21일 후의 재검사 Cronbach's α 값은 .87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실패공포의 Cronbach's α 값은 .93이며, 구체적인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3-3>과 같다.

<표 3-3> 실패공포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s α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10,15,18,20, 22,24,25	7	.85
자신이 <u>평가절하</u> 되는 것에 대한 공포	1,4,7,16	4	.91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2,5,8,12*	4	.84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11,13,17,21, 23	5	.92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3,6,9,14,19	5	.92
전체		25	.93

주. *은 역채점 문항

3. 설문지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은 <표 3-4>에서 제시한 부분과 같이 총 64문항으로 인문사회학적 요인 3문항, 부모기대부응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I) 18문항, 진로결정수준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18문항, 실패공포 척도(Performance Failure AppraisalInventory-Revised: PFAI-R)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설문지의 구성

구분	변수	하위차원	문항수	Likert 척도
독립변수	부모기대부응	부모기대	9	6점
		자기수행	9	
종속변수	진로결정수준	진로확신	2	5점
		진로미확신	16	
매개변수	실패공포	수치당황	7	6점
		평가절하	4	
		불확실한 미래	4	
		타인관심상실	5	
		타인속상	5	
인문사회학적 요인	성별	성별	1	-
	학년	학년	1	
	나이	나이	1	

본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A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부 여러 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확일적으로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23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 학생들을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 및 실시 지침을 설명한 후 답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알려주고,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작성해 줄 것을 주지시킨 후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A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23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에서 여러 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확실적으로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232부를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본에 대한 인문사회적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3 학년	232	100%
성별	남	190	81.9
	여	42	18.1
전공	기계과	53	22.8
	산업설비검사과	45	19.4
	전기과	30	12.9
	화공과	34	14.7
	토목과	38	16.4
	건축과	32	13.8
	합계		232

제 2 절 측정도구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될 구성 개념과 하위차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항목의 타당여부를 확인하고자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 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1.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항목요소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서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측정지표의 실제 측정 결과가 의도된 대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 방법으로는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유값(eigen vlaue)은 특정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을 나타내는데, 고유값이 1.0보다 적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이 1.0 이상인 항목만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기대부응 요인분석

부모기대부응에 관한 요인분석은 <표 4-2>과 같다. 값은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났고, KMO는 .859, X^2 값은 2421.247, 유의 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측정 도구로 판단된다.

<표 4-2> 부모기대부응 요인분석 결과

구성		
	학업성취	인격성숙
q1_1a	.840	.144
q1_1b	.911	.243
q1_2a	.865	.152
q1_2b	.779	.261
q1_3a	.725	.155
q1_3b	.831	.216
q1_4a	.888	.124
q1_4b	.792	.187
q1_5a	.062	.740
q1_5b	.209	.867
q1_6a	.162	.852
q1_7a	.024	.752
q1_7b	.278	.810
q1_8a	.231	.725
q1_9a	.177	.902
q1_9b	.165	.811
고유값	5.124	3.888
분산비율	48.875	31.231
누적비율	48.875	76.645

KMO(Kaiser-Meyer-Olkin): .859 X^2 : 2421.247

유의확률 : .000

나. 진로결정수준 요인분석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진로확신에 대한 문항 중 rq2 3번 문항부터 rq 18번 문항까지는 부정 문항이기 때문에 값을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 값은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KMO는 .899, X^2 값은 2882.307, 유의확률은 .000으로 타당성이 있는 측정도구로 판단된다.

<표 4-3> 진로결정수준 요인분석 결과

구성		
	진로확신	진로미결정
q2_01	.898	.056
q2_02	.881	.108
rq2_03	.201	.858
rq2_04	.157	.712
rq2_05	.259	.840
rq2_06	-.040	.725
rq2_07	.234	.605
rq2_08	.109	.507
rq2_09	.144	.717
rq2_10	.212	.835
rq2_11	.245	.602
rq2_12	.095	.588
rq2_13	.132	.765
rq2_14	.105	.801
rq2_15	-.032	.742
rq2_16	.286	.606
rq2_17	.068	.658
rq2_18	.112	.743
고유값	2.221	4.337
분산비율	25.042	52.513
누적비율	25.042	78.552

KMO(Kaiser-Meyer-Olkin): .899 X^2 : 2882.307

유의확률 : .000

*rq : 역채점 문항

다. 실패공포 요인분석

실패공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4>과 같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항 중 12번 문항은 부정 문항이기 때문에 값을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 값은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KMO는 .904, X² 값은 8552.223, 유의확률은 .000으로 타당성이 있는 측정도구로 판단된다.

<표 4-4> 실패공포 요인분석 결과

구성					
문항	수치당항	평가절하	불확실한 미래	관심상실	타인속상
q3_10	.916	-.022	.108	.111	.208
q3_15	.901	-.038	.123	.129	.192
q3_20	.887	-.057	.139	.299	.178
q3_18	.859	.078	.087	.271	.225
q3_22	.842	.125	.298	.178	.262
q3_25	.839	.322	.167	.252	.218
q3_24	.822	.142	.228	.156	.192
q3_01	.142	.922	.151	.189	.216
q3_07	.182	.918	.170	.187	.082
q3_04	.176	.874	.352	.225	.122
q3_16	.270	.778	.213	.272	.206
q3_05	.240	.152	.822	.144	.115
q3_02	.322	.103	.792	.214	.299
q3_08	.238	.051	.786	.330	.247
rq3_12	.039	.255	.746	.261	.310
q3_13	.322	.280	.142	.896	.401
q3_11	.287	.320	.332	.860	.170
q3_17	.293	.317	.239	.840	-.062
q3_21	.310	.342	.273	.765	.201
q3_23	.277	.464	.211	.678	.257
q3_19	.246	.182	.128	.234	.843
q3_14	.216	.132	.214	.266	.821
q3_03	.243	.344	.202	.303	.792
q3_06	.171	.327	.198	.294	.698
q3_09	.112	.294	.122	.288	.608
고유값	5.904	4.478	4.442	3.982	2.166
분산비율	29.619	19.346	16.872	9.548	5.229
누적비율	29.619	47.452	62.332	70.017	75.220

KMO(Kaiser-Meyer-Olkin): 0.904 X²: 8552.223

유의확률 : .000

*rq : 역채점 문항

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낸다. 즉, 동일한 정의나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하게 되면 똑같은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명확성이나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의존가능성, 안정성, 일치성, 예측 가능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측정방법에는 반복 측정법, 평행 검증법, 항목 이분법, 내적 일관성, Chronbach's 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내적 합치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Cronbach's α 값이 0.6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측정문항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설문항목에서 역문항으로 되어 있던 문항은 역채점을 반영(1→5, 2→4, 3→3, 4→2, 5→1)하였고, 부모기대부응(LPE)와 그 하위차원인 학업성취와 인격성숙은 PSP와 PPE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였다. 즉, LPE=PSP-PPE의 결과값을 말한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5>와 같으며,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값은 모든 항목에서 0.8 이상을 보여 신뢰도는 바람직한 수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3)

<표 4-5> 신뢰도 분석 결과

주요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PPE	9	.82
PPE 학업성취	4	.84
PPE 인격성숙	5	.87
PSP	9	.80
PSP 학업성취	4	.90
PSP 인격성숙	5	.90
LPE 전체	9	.93
LPE 학업성취	4	.90
LPE 인격성숙	5	.93
진로결정수준	18	.90
진로확신	2	.84
진로미결정	16	.89
실패공포척도	25	.93
수치당황	7	.85
평가절하	4	.91
불확실미래	4	.84
관심상실	5	.92
타인속상	5	.92

제 3 절 기술통계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인 부모기대부응, 진로결정수준, 실패공포에 대한 각 하위차원인 부모기대(PPE), 자기수행(PSP), 부모기대부응(LPE), 진로확신, 진로미결정, 수치당황, 평가절하, 불확실미래, 관심상실, 타인속상에 대한 기술적 통계값을 알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표 4-6>과 같이 실시하였다.

평균산출결과에서 부모기대부응은 -0.13, 진로결정수준은 2.93, 실패공포는 2.98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기준으로 모두 최대값이 2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볼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여기서 ‘정규성을 갖는다’는 확률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정규분포의 정규(nomal)는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말을 뜻한다. 그러므로 변수 간 정규성을 가지므로 회귀분석 등을 진행하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PPE	1.38	6.00	3.827	.893	-.260	-.437
PPE 학업성취	1.00	6.00	3.212	1.117	.092	-.724
PPE 인격성숙	1.00	6.00	4.441	.927	-.534	.197
PSP	1.00	5.88	3.694	1.251	.047	-1.203
PSP 학업성취	1.00	6.00	3.180	1.488	.202	-1.167
PSP 인격성숙	1.00	6.00	4.208	1.237	-.400	-.803
LPE	-3.75	3.75	-.133	1.734	.082	-1.241
LPE 학업성취	-4.00	4.00	-.032	1.846	.101	-1.033
LPE 인격성숙	-5.00	5.00	-.234	1.739	-.011	-.847
진로결정수준	1.00	5.00	2.926	1.138	.177	-1.430
진로확신	1.00	5.00	2.901	1.264	.131	-1.225
진로미결정	1.00	5.00	2.950	1.078	.206	-1.470
실패공포	1.10	4.89	2.977	1.090	-.213	-1.466
수치당황	1.00	5.00	3.006	1.204	-.221	-1.473
평가절하	1.00	5.00	3.048	1.153	-.240	-1.255
불확실미래	1.00	5.00	2.984	1.058	-.194	-1.142
관심상실	1.00	5.00	2.912	1.144	-.178	-1.357
타인속상	1.00	5.00	2.933	1.110	-.172	-1.357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란 주요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증가하거나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인정하는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말한다. 이처럼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 간의 연관 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 1 사이로 나타나며, 0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지고 ± 1 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인 부모기대부응, 진로결정수준, 실패공포 그리고 각 하위차원인 부모기대(PPE), 자기수행(PSP), LPE-학업성취, LPE-인격성숙, 진로확신, 진로미결정, 수치당황, 평가절하, 불확실한 미래, 타인관심상실, 타인속상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7>과 같다. LPE의 경우, 지각된 자신의 수행정도인 PSP와 지각된 부모의 기대 수준인 PPE의 차이값이라는 계산을 통해 산출된 변인이기 때문에, PPE, PSP 두 변인의 값에 따라 나머지 변인인 실패공포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LPE와 PPE, PSP 각각의 변인 모두를 상관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거의 모든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기대부응(LPE)과 실패공포는 부적 상관($r = -.903, p < .001$), 부모기대부응(LPE)과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r = .908, p < .001$), 실패공포와 진로결정수준은 부적 상관($r = -.940, p < .001$)이 각각 유의미하였다. LPE-학업성취의 경우, 실패공포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871, p < .001$), 진로결정수준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872, p < .001$). LPE-인격성숙의 경우, 실패공포와 유의미한 부적상관($r = -.875, p < .001$),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885, p < .01$).

<표 4-7>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4.1	4.2	4.3	4.4	4.5	5	5.1	5.2
1. LPE	1											
2. PPE	-.723**	1										
3. PSP	.870***	-.289***	1									
4. 실패공포	-.903***	.599***	-.824***	1								
4.1 수치당황	-.890***	.586***	-.815***	.979***	1							
4.2 평가절하	-.867***	.573***	-.793***	.962***	.936***	1						
4.3 불확실미래	-.844***	.526***	-.794***	.934***	.883***	.877***	1					
4.4 관심상실	-.872***	.589***	-.789***	.965***	.946***	.906***	.855***	1				
4.5 타인속상	-.864***	.601***	-.769***	.966***	.933***	.902***	.884***	.926***	1			
5. 진로결정수준	.908***	-.593***	.835***	-.940***	-.928***	-.916***	-.879***	-.900***	-.896***	1		
5.1 진로확신	.865***	-.564***	.797***	-.877***	-.867***	-.857***	-.824***	-.836***	-.827***	.976***	1	
5.2 진로미결정	.902***	-.591***	.829***	-.957***	-.941***	-.929***	-.890***	-.918***	-.921***	.967***	.887***	1
- LPE학업성취	.969***	-.709***	.838***	-.871***	-.854***	-.835***	-.816***	-.842***	-.839***	.872***	.828***	.869***
- LPE인격성숙	.965***	-.691***	.846***	-.875***	-.868***	-.843***	-.816***	-.846***	-.832***	.885***	.846***	.876***

***p<.001

제4절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실시하는 분석방법을 말하며, ANOVA 표의 F-값과 유의확률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설명하고, R²으로 설명력을, Durbin-Watson 값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VIF 값으로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기대부응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실패공포가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매개변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인 LPE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고 전체의 82.4%로 나타났다(R² : .824, F=1076.666, p<.001), Durbin-Watson 값은 2.291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귀식 분석 결과 LPE(β =.908, p<.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4-8> LPE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변수	(상수)	3.005	.032	95.380	.000		
	LPE	.596	.018	.908***	32.813	.000	1.000
R=.908, R ² =.824, adj. R ² =.823, F=1076.666, p=.000, Durbin-Watson = 2.291							

종속변수(진로결정수준), ***p<.001

2.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 분석을 실시 하였다. Baron & Kenny(1986)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은 기본적으로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관계, 2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 3단계는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 2단계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로 정하였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가 유의미할 때 시행하며, 이 때, 3단계가 유의미할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유의미할 경우 부분매개, 독립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완전매개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매개변수가 투입된 다음에는 매개변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나누어 갖는 것을 부분매개라고 하고, 매개변수가 완전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완전매개라고 한다.

<표 4-9>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의 유의미성을 파악과 가설검증 위해 독립변수인 LPE가 매개변수인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고 전체의 81.5%로 나타났으며 ($R^2 : .815$, $F=1010.412$, $p<.001$), Durbin-Watson 값은 1.860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 분석 결과 $LPE(\beta = -.903, p<.001)$ 는 실패공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LPE가 증가할수록 실패공포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가설 2>은 채택되었다.

<표 4-9> LPE가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변수	(상수)	2.901	.031		93.633	.000	
	LPE	-.568	.018	-.903***	-31.787	.000	1.000 1.000

R=.903, R²=.815, adj. R²=.814, F=1010.412, p=.000, Durbin-Watson = 1.860

종속변수(실패공포), ***p<.001

<표 4-10>과 같이 매개변수인 실패공포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고 전체의 88.5%를 설명하고 있다. (R² : .885, F=1761.739, p<.001). Durbin-Watson 값은 1.936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 분석 결과 실패공포(β = -.940, p<.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4-10> 실패공포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변수	(상수)	5.847	.074		78.900	.000	
	실패공포	-.981	.023	-.940***	-41.973	.000	1.000 1.000

R=.940, R²=.885, adj. R²=.884, F=1761.739, p=.000, Durbin-Watson = 1.936

종속변수(진로결정수준), *p<.05, **p<.01, ***p<.001

<표 4-11>과 같이 3단계 가설검증과 독립변수인 LPE와 매개변수인 실패공포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고 전체의 90.3%로 나타났다.(R² : .903, F=1068.775, p<.001). Durbin-Watson 값은 2.14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식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LPE($\beta = .318,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변수인 실패공포($\beta = -.654,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표 4-11> LPE / 실패공포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4.984	.146		34.042	.000		
변수 LPE	.208	.031	.318***	6.654	.000	.185	5.393
실패공포	-.682	.050	-.654***	-13.695	.000	.185	5.393

R = .950, R² = .903, adj. R² = .902, F = 1068.775, p = .000, Durbin-Watson = 2.144

종속변수(진로결정수준), *** $p < .001$

<표 4-12>와 같이 최종적으로 독립변수인 LPE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실패공포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1010.412, p < .001$), 2단계($F = 1076.666, p < .001$), 3단계($F = 1068.775,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R²는 1단계에서 81.5%, 2단계에서 82.4%, 3단계에서 90.3%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의 LPE($\beta = -.903, p < .001$)는 실패공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의 LPE($\beta = .908,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3단계의 매개변수인 실패공포($\beta = -.654,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LPE($\beta = .908 \rightarrow .318$)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 실패공포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LPE($\beta = .318,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영향을, 매개변수인 실패공포($\beta = -.654,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의 실패공포는 2단계와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공포는 부분 매개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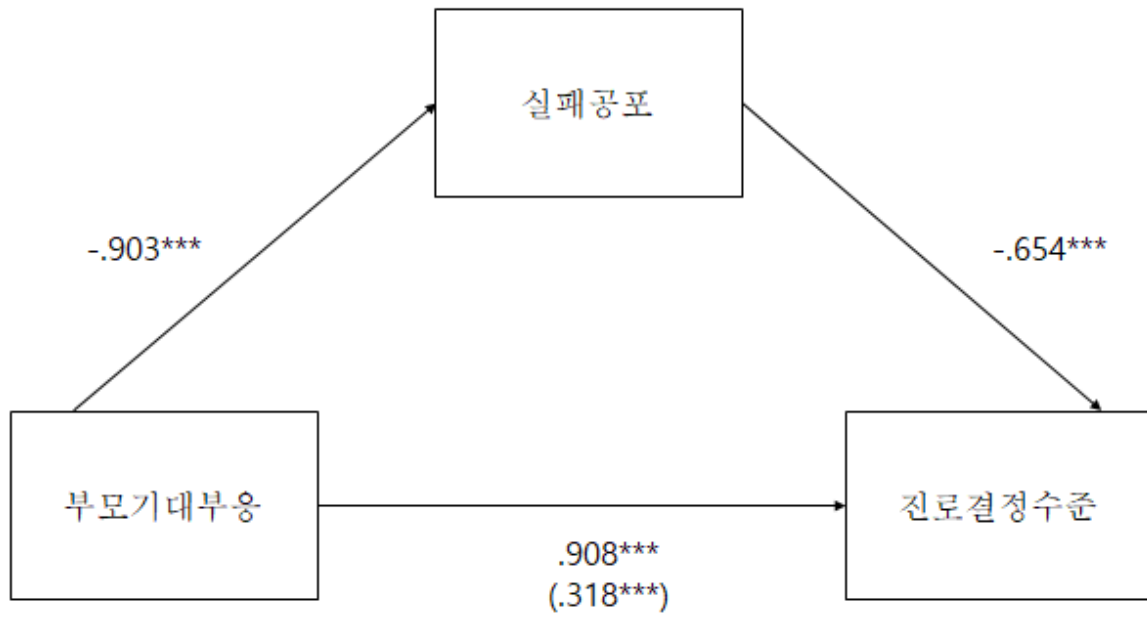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Sobel 검정을 통한 유의성 확인 결과 실패공포($Z=-26.155, p<.001$)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패공포는 LPE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며,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실패공포가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12>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1 단계	LPE	실패공포	-0.568	.018	-.903***	-31.787	.000
			R = .903, R2=.815, adj. R2=.814, F=1010.412, p=.000				
2 단계	LPE	진로결정수준	.596	.018	.908***	32.813	.000
			R = .908, R2=.824, adj. R2=.823, F=1076.666, p=.000				
3 단계	LPE	진로결정수준	.208	.031	.318***	6.654	.000
			실패공포	-0.682	.050	-.654***	-13.695
R = .950, R2=.903, adj. R2=.902, F=1068.775, p=.000							

***p<.001

위의 통계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기대부응(LPE)과 실패공포 요인 간의 관계는 유의한 독립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단계). 이후 부모기대부응(LPE)과 진로결정수준 또한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단계). 2단계에 매개변수인 실패공포 요인을 추가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3단계),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 β 가 2단계 .908에서 3단계 .318로 .590만큼 부적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과 같이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실패공포 요인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분석결과의 논의

대다수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고졸 채용으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 등 졸업 후 진로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진로 선택에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만, 때로는 이 다양성이 학생들에게 뚜렷한 하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다가 결국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하거나 결정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의 뜻이 뚜렷한 학생들도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빨리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함이나, 공부를 잘하지 못해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부모의 기대에 자신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 대부분이 진로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이기세 외, 2018).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학생 개별적 소질에 맞춘 교육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입학금과 3년간의 수업료의 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이 해외 기업에서 일하고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부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직업생활에 필요한 핵심기초능력 함양 등 진로결정 시기에 진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치관이 잡히지 않은 미성년의 학생들은 달콤한 유혹에 쉽게 현혹되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고자 취업을 강요하고 고졸 취업만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미래라고 원치 않은 곳에 취업하곤 한다.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제도와 실제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선택의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고, 학생들은 진로결정에 있어 어려움과 가정에서의 부모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이슈로 부모기대부응에 대한 진로결정수준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대상이 대학생이나 성인인 경우가 많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성화고등학생들은 다른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달리 고등학교 시절에 진로를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정서적인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부모기대부응 정도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등학생들이 겪은 실패에 대한 공포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SPSS Statistics 2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량 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매개효과 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설 검증 결과

첫째, 부모기대부응(이하LPE)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R^2 는 0.824로 나타났다. LPE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약 82.4%라고 분석되었으며, LPE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PE가 높은 학생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아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인 LPE가 매개변수인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R^2 는 0.815로 나타났다. 이는 LPE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약 81.5%라고 분석되었으며, LPE은 실패공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LPE가 증가할수록 실패공포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실패공포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고 실패공포($\beta = -.940$,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실패공포를 조금 경험한 학생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패공포는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의 간에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분석의 R^2 는 1단계에서는 81.5%, 2단계에서는 82.4%, 3단계에서는 90.3%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LPE($\beta = -.903$, $p < .001$)는 실패공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는 LPE($\beta = .908$,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실패공포($\beta = -.654$, $p < .001$)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LPE($\beta = .908 \rightarrow .318$)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 실패공포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LPE($\beta = .318,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정(+)
 영향을, 매개변수인 실패공포($\beta = -.654, p < .001$)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의 실패공포는 2단계와 3단계에
 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실패공포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Sobel 검정을 통한 유의성 확인 결과 실패공포
 ($Z = -26.155, p < .001$)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패공포는 LPE와 진로
 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2. 논의

본 연구는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이 지
 각하는 부모의 기대 수준과 실제 자기수행의 차이를 통해 부모 기대 부응 정도
 를 파악하고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기대부응 정도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하며 이러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실패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인 ‘실패공포’가 유의하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
 해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
 준에 정(+)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높은 학생
 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아 진로에 확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조금 느낀다는 연구(Leung, Hou, Gati와 Li, 2011)와 대학생이 부
 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다(이기세 외,
 2018)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나아가 대상이 다르더라도 지각된 부모기대부응
 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기대부응이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PE가 증가할수록 실패공포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실패할 것이라고 느끼는 두려움인 실패공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실패공포를 ‘실패 시 수치심이 예상되는 평가 상황에서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하였을 때,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평가절하 및 지속적인 처벌을 가하고 성공에 대하여 무관심할 경우 자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실패하게 되며, 실패의 결과로 실패공포가 발달된다는 선행연구(Aunola, Stattin & Nurmi, 2000; Sideridis & Kafetsios, 2008)와 일치한다. 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부모나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종종 미루기 행동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는 연구(박보람, 양난미, 2012)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실패공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실패공포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패공포를 조금 경험한 학생은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공포는 개인이 실패를 피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지연행동을 하게 만든다(추성엽, 2008). 지연행동이란 시험을 준비하거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등 이 다음의 상황을 위하여 해나가야 할 과업을 선택하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미루는 것을 뜻한다. 실패공포가 높을수록 지연행동이 발생한다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지연행동은 성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것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신수지, 2016), 높은 실패공포는 개인이 실패를 회피하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 지연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연구(Berger와 Freund, 2015), 실패공포가 높은 개인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윤지영, 이지연, 2017)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넷째, 실패공포는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학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고 지각할수록 실패공포는 줄어들고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실패공포는 증가하게 되고 이는 진로결정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패공포는 LPE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지도할 때에 진로희망, 흥미분야, 성적 등 단편적인 부분만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실제 기대 정도,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기대부응 정도, 실패공포 정도 등 다각 면에서 정보를 얻고 학생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기대부응이 실패공포를 매개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부모기대부응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인인 실패공포가 매개효과를 가지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과의 선행연구는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또한 진로결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성화고등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는 통계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진로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바이다.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지, 대학에 진학을 할지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특성화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진로 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 영향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의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론적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부모기대 정도와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학생이 스스로 지각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수준은 부모의 지지나 기대와 같은 개인외적 요인뿐만 아닌 개인내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셋째, 실패공포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실패공포가 높아지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생겨 처벌적인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 등과 같은 심리적인 반응이 증가하여 진로결정과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실패공포나 개인의 성취경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염두하며 연구 및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도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학생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직접 자신의 성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자신의 성향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로탐색 및 자기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실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실패가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닌 PBL이나 프로젝트 교수방법을 적극 활용하며 수업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선택을 미결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인지하여 실

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들에게 자녀 발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부모기대부응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교사는 학생에게 정보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 학생을 온전히 파악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공동체 같은 교사동아리 운영과 교원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다섯째, 실패에 대한 이해와 수용 문화 조성을 해야 한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는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국가 차원에서 진로상담 전문 센터를 설립하여 부모와 학생 모두 진로와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 진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된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이 광주광역시 A특성화고등학교 1개 학년과 한 지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전공의 경우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성별, 학년 비율의 경우 분포된 비율이 고르지 않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범위를 특정지역으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와 학년에 관해 균형 있게 표집하

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자기보고식 조사를 통해 표집된 자료이므로 응답자들이 솔직하지 않게 반응했거나, 객관적이지 않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요인에 각 변인에 맞는 측정도구를 선정하여 총 64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총 250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일부 여러 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확일적으로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8부는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음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시 응답자의 더욱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보고식 조사뿐 아니라, 개별 면담의 결과를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보완하여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대부응척도 3가지 요인 중 2가지 요인, 인격적 성숙과 학업적 성취만 사용하였다. 부모기대부응에는 인격적 성숙, 학업적 성취, 연인관계 3가지 요인이 있다. 분석하지 않은 요인인 연인관계 요인을 포함시켜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와 실패공포를 매개하여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연인관계 요인을 배제하여 연구한 결과와 3가지 전체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한 결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기대부응과 실패공포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는데, 이외에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등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각 측정 변수들의 연관성에 관한 추후 연구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비, 이우걸, 송주연(2021). 학생이 지각한 부모 성취압력과 자녀의 학업성취, 시험불안,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35(2), 365-392.
- 고미숙(2015).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대처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장애학회**, 6(1), 111-128.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2022).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Ⅲ).』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18). 『기대-사전적 의미.』
- 권소희(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0권 2호, 933-945.
- 김단비(2018). **부모양육행동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부모기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마리아(2013).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이 자녀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3(2), 117-139.
- 김미경(2016).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20(4), 36-49.
- 김세록(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19).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현(2013).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

- 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림(2019).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혜(2013).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결정 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63-109.
- 김정애(1994). **사회적지지 자기 지각과 자아방어기제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정림(2006).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완벽주의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혁(2007). **청소년 복지론.** 교육과학사.
- 박미정(2017). **부모-성인자녀 갈등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관련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와 갈등적 독립의 조절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와 상호작용 효과. **아동학회지**, 17(1), 189-212.
- 박보람, 양난미(2012).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31(2), 541-561.
- 박정, 장현아(2017). **대학생의 실제-의무 자기불일치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교육치료연구**, 9(1), 249-263.
- 박정희, 이은희(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백지은, 이승연.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13(1), 99-122.
- 서선희(1998). 한국적 효 개념의 특수성. **한국노년학**, 18(3), 142-154
- 송은주, 이지연, 이채희(2012). 청소년용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209-226.
- 신동우, 유계숙(2012).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학업,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2.
- 안명희(2011). 모의 심리적 괴롭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무기력감과 자기부적절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145-164.
- 양아인(2022). 중·고등학교 태권도선수가 지각하는 부모기대가 성취목표와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진(202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장벽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통계청(2022). 『청소년 통계.』
- 유창림(2016). 고등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매개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남정, 신나나(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3), 157-176.
- 윤지영, 이지연(2017). 모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와 실패공포를 매개변인으로. **사회과학논집**. 48(2), 117-138.
- 이계윤, 사대환(2015). 골프선수가 지각한 부모기대와 골프수행력의 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조절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3(3), 17-27
- 이기세, 이수정, 연규진(2018). 대학생들의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진로수행회피목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3), 21-41.
- 이도형 외(2018). 부모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의 부모기대에 대한 경험: 합의적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30(3), 821-853.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식, 정철영(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4-109.
- 이수빈(2020).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2013). 『SPSS 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6(3), 89-105.
- 임성문(2006). 각성형과 회피형의 만성적 지연행동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91-102.
- 임성문(2006). 초기 부적응도식과 만성적 지연행동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경로 모형의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종호(2019). 한·일 청소년 골프선수가 지각하는 부모의 기대와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과 운동성취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지현(202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실패공포,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학회지**, 2, 65-91.
- 임진, 김은정(2008). 청소년의 실제 - 이상 자기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578-579.
- 장계영, 김봉환 (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2(2), 539-558.
- 장광원(2012). 진로의사결정 타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대학생생활적응도의 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장재윤, 윤소연, 김범성(2005). 구직관련 요인, 부합도 지각 및 조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남녀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10(4), 619-651.
- 전미리, 김봉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정두리, 이은교, 조한익(2020). 대학생의 부모기대부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향상초점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19), 571-594.
- 정소영(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공호(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4.
- 조공호(2012). **사회관계론의 동서비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영아(2007). 비서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비서사무경영연구**, 16(1), 107-127.
- 조은정(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15(1), 35-50.
- 주홍석, 정철영(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스트레스 및 문제해결력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3), 73-97.
- 최명진(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외(2000). 권위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체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1), 69-84.
- 최차현(2015). 목표유형과 공적 자의식이 행동적 자기손상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상엽, 임성문(2008b).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9(4), 169-198.
- 한지유(202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기대부응과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

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형정은, 강성모(2016). 자기불일치가 전문대학생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 미결정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69-88.

Agliata, A. K., & Renk, K. (2009). College students' affective distress: The role of expectation discrepancies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4), 396-411.

Aunola, K., Stattin, H., & Nurmi, J. E. (2000).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Journal of Adolescence*, 23(2), 205-222.

Birney, R. C., Burdick, H., & Teevan, R. C. (1969). *Fear of failure*. NY: Van Nostrand-Reinhold.

Burka, J. B. & Yuen, L. M. (1983).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Addison-Wesley.

Chang, E. C., Watkins, A., & Banks, K. H(2004). How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Relate to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Testing a Stress-Mediation Model in Black and White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93

Cock, D., & Halvari, H. (1999). Relations among achievement motives, autonomy, performance in mathematics, and satisfaction of pupils in elementary school. *Psychological Reports*, 84(3), 983-997.

Conroy, D. E., Poczwardowski, A., & Henschen, K. P. (2001). Evaluative criteria and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failure and success for elite athletes and performing arti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3(3), 300-322.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 measurement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 76-90.
- De Castella, K., Byrne, D., & Covington, M. (2013). Unmotivated or motivated to fail? A cross-cultural study of achievement motivation, fear of failure, and student dis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3), 861-880.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18-232.
- Ellis, A., &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New York: Institute for Rational Living.
- Elliot, A. J., & McGregor, H. A. (1999). Test anxiety and the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628-644.
- Elliot, A. J., & Thrash, T. M. (200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ar of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8), 957-971.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oodnow, J. J. (1985). *Change and variation in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35-270.
- Hartman, B. W., & Fuqua, D. R. & Hartman, P. T. (1983). The predictive potential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identifying chronic indecis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 103-108.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414.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Osipow, S. H., Carney, C. G., Wint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s scale*. Columbus: Marthon Counseling and Press.
- Oishi, S., & Sullivan, H. W. (2005).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in culture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3*(5), 1267-1294.
- Rothblum, E. D. (1990). *Fear of failure*. In Leitenberg, H. (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pp. 497-537).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addler, C. D., & Buley, J. (1999). Predictor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4*(2), 686-688.
- Sagar, S. S., Lavalley, D., & Spray, C. M. (2009). Coping with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young elite athletes. *Journal of Clinical Sport Psychology, 3*(1), 73-98.
- Sagar, S. S., & Lavalley, D. (2010).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fear of failure in adolescent athletes: Examining parental practic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1*(3), 177-187.
- Schowenburg, H. C., Lay, C. H., Phchyl, T. A., & Ferrari, J. R. (2015). 학업 미루기 행동 상담: 이해와 개입[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김동일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Shanahan, M, J. & Elder, G. H., Jr. (2001). The process of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Patterns during the transition adulthoo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439-465.
- Shek, D. T.. & Chan, L. K.(1999). Hong Kong Chinese parents' perceptions

- of the ideal child. *The journal of psychology*, 133(3), 291-302.
- Sideridis, G. D., & Kafetsios, K. (2008). Perceived parental bonding, fear of failure and stress during class pres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2), 119-130.
- Walsh, D. J. (1987). Individual variation within the voc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A review and integr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52-65.
- Wang, L. F., & Heppner, P. P. (2002). Assessing the impact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on Taiwanese college stu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4), 582-608.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기대부응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실패공포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각 항목들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 O 표 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을 경우 분석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3.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학과 석사과정 허경준
 지도교수: 김진숙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또는 O표 해주세요.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전공

- ① 기계과 ② 산업설비검사과 ③ 전기과 ④ 화공과 ⑤ 토목과 ⑥ 건축과

<부록 1> 부모기대부응 척도

다음 문항은 부모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정도와 그 기대를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혹은 O표를 하세요.

부모기대(a): 현재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수행(b): 현재 당신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은 편이다	조금 그렇지 않은 편이다	조금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업 성취	1	a	부모님은 내게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나는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a	부모님은 내 학업 성적을 통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부모님은 내 학업성적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a	부모님은 내게 남들보다 학업적으로 우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나는 남들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a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과 가문을 빛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나는 부모님과 가문을 빛내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인격 성숙	5	a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a	부모님은 내가 집 밖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나는 집 밖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a	부모님은 내게 책임감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나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a	부모님은 내게 성숙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나는 성숙하게 행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a	부모님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남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2> 진로결정수준 척도

다음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혹은 O표를 하세요

*** (OOO란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진로를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OOO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OOO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OOO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스스로 결정해 볼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 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진로 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진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버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전공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진로결정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잘 할 수 있을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진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실패 공포 척도

다음 문항들은 어떤 일을 못해 내어 실패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를 가정하여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_____ 1문항 예시)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u>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종종 있다.</u>					
1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	그것은 내게 중요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족한 내 재능을 탓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미래 계획들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중요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비판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그것은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0	잘해낼 때에 비해 나는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덜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로 인해 나의 미래계획이 영향 받게 될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람들은 나를 보다 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쉽게 내 자신을 나무란다.	①	②	③	④	⑤
16	성과가 나도록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오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람들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이 이를 보고 있다면 나는 당황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은 실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못해내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 대해 못미더워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느끼게 되리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가치가 감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